

듣기 (1번 ~ 30번)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남자 : 어, 처음 보는 책이네. (의외의 일로 놀라는 투로) 그런데 책 제목이 어제 본 영화 제목하고 같아요.
여자 : 아, 이거 원래 책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영화와 책은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남자 : _____

2. 남자 : 저희 역사 모임에서 올해도 선생님을 초청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여자 : 네, 금요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남자 : _____

3. 남자 : 이번 선거에서 투표는 하셨습니까?
여자 : 네, 했습니다.
남자 :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자 : _____

4. 남자 : 5초 동안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면 기회는 방청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자 : (답을 몰라 찢찢대는 톤으로) 크, 크, 크 뭐더라? 아, 입에서 빙빙 도는데 생각은 안 나요.
(시간을 알려 주는 벨 소리 5, 4, 3, 2, 1, 땡)
남자 : _____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5. 남자 :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한 문장씩 시를 읽듯 - 광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 주는 시간, 9초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 잡아 주는 시간, 6초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대신 눌러 주는 시간, 3초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6. 여자 :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까요? 축구 선수 박동우 얼굴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도 얼굴처럼 길대요.
남자 : (약간 의심스러워하며) 진짜요? 얼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자 : 있대요. 그래서 얼굴이 둥근 사람은 치아도 둥근 모양이고요,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치아도 네모 모양이라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치아가 서양 사람보다 짧고 둥글대요.
남자 : 그래요? 그거 신기하네. 한번 박동우 씨 이도 자세히 봐야겠네요.

7. 여자 : (리포터 톤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에게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시지요.
남자 : (생각하는 투) 음, 아! 여행 갈 때는 가루비누를 가져가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 빨래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비닐 봉투에 빨래하고 가루비누 약간, 그리고 따뜻한 물을 넣어서 흔든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서 헹구시면 돼요.

※ [8-1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 들은 내용 중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여자 : (가벼운 다큐멘터리 읽듯이)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아름다운 외관으로 유명한 이 성은 하얀색의 탑과 청색의 아름다운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 주위에는 푸른 호수가 3개나 있어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 줍니다. 다른 성과는 달리 이 성은 당시에 왕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의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9.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남자 : (점잖은 학자 톤으로) 곤충들도 좋아하는 색이 있습니다. 특히 모기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싫어하는데요. 그것은 파란색이, 곤충들이 좋아하는 자외선과 비슷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란색 모기장이 아닌 노란색 모기장을 선보인다면 모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기존의 슈퍼 영웅들과 ‘엑스맨’의 공통점을 고르십시오. (4점)

남자 : (영화 해설자, 평론가처럼) 세상을 구하는 초능력 영웅들, 영화 속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의 고향은 모두 만화입니다. 그 중 최근에 나온 ‘엑스맨’은 기존의 영웅들과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 혼자 등장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초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외면받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결핍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셈입니다.

※ [11-13] 다음을 듣고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1. 여자 :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것을 종이에 모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 놓기만 했는데 다 이루어졌다.
남자 : 에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그 사람이 뭔가 노력을 했겠지.
여자 : 아니래도. 그냥 써 놓기만 했다니까.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 너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해 봐.

12. 남자 :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쓰는 말들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비호감’ 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갈비’ 란 단어를 ‘갈수록 비호감’ 이라고 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쓴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자 : 갈수록 비호감, 갈비? 난 재미있는데? 잠깐 쓰다가 그만둘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들만 쓰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안 쓰잖아.

13. 남자 :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 다시 묻기도 하고요.
여자 :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알지만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

14.



<대본>

① 여자(컴퓨터매장 점원) : 노트북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휴대성이죠.
작고 가볍게 잘 나온 제품이에요.

남자(회사원) : 작아서 예쁜 건 한데,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자주 보니까 화면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② 남자(아나운서) : 손바닥만 한 컴퓨터,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김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여자(기자) : 휴대폰 크기만 한 노트북 컴퓨터가 선보였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속도와 성능은 다른 컴퓨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③ 여자(대학생) : 숙제를 하려고 해도 빈 자리가 없어서 못 하겠다.

남자(대학생) : 여기 컴퓨터실은 언제나 만원이더라. 이번 기회에 노트북이라도 하나 장만해야겠어.

여자(대학생) : 노트북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④ 남자(대학생) : 으아, 또 컴퓨터가 안 되네.

여자(대학생) : 또? 너 그거 산 지 얼마 안 되잖아. 요즘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컴퓨터는 없던데.

남자(대학생) : 이거 국내에서 산 게 아니라서 수리점 찾기도 어려운 데…….

15.



<대본>

- ① 남자1(대학생) :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남자2(대학생) : 저기 벽에 있는 지도에서 ‘현재 위치’ 좀 찾아봐. 나도 뭔가 이상하다.
- ② 남자1(4,50대 책임자) :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거지요?
남자2(현장 감독) : 여기니까 이 지점까지 50m만 더 파면 될 것 같습니다.
- ③ 남자1(50대 강사) : 앞으로 세 걸음 간 후에 뒤로 두 걸음, 그리고 오른 쪽으로 돌아 다시 앞으로 세 걸음 가는 거예요.
남자2(30대 수강생) : 보면 쉬운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돼요.
- ④ 남자1(20대) : 선배, 숙소까지 가는 길 알아요? 거기 찾기 되게 어렵다던데.
남자2(30대) : 걱정 마.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갈 길을 다 알려주거든.

※ [16-18]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6. 남자 : 금주 씨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자 : 저희 부모님들요?
남자 : 네, 그래야 결혼 허락도 받고 결혼 준비를 하지요. 부모님께서 저 보자고 안 하세요?
여자 : 궁금해하지지요. 그래도 영진 씨 부모님을 먼저 뵙도록 해요.
남자 : 그래요, 그럼. 금주 씨 뜻대로 하죠.

17. 남자 : 여름철에 먹는 보양 음식도 체질에 따라 맞춰 먹어야 한다면
서요?
여자 : 네, 맞습니다. 대체로 체격이 날씬하고 작은 분들은 음체질로
보는데요. 밀가루나 커피가 몸에 잘 안 맞지요.
남자 : 아, 그럼 제가 음체질이네요.
여자 : 아, 네.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삼계탕이나 인삼
같은 것이 좋고요. 반대로 이런 음식이 안 맞는 분들은 양체
질인데요, 양체질인 분들은 몸의 열을 내려주는 해산물 같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18. 남자 : 제가 주택 구입 때문에 대출금이 많은데요. 앞으로 5, 6년 후
에는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대출금
을 먼저 갚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금을 드는 것이 좋을
까요?
여자 : 먼저, 대출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대출금
이율이 너무 높다면 대출금을 먼저 갚으시고요. 이율이 그렇
게 높지 않다면 대출금을 갚는 대신 적금을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19-20]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9. 남자 : (아나운서 톤으로) 연세가 일흔이 넘은 할머니들이 ‘할미꽃’ 이란 시집을 내셨습니다. 밭에서 콩 꽃이 피려고 하는 모습, 비 온 뒤 나비가 꽃에 날아드는 모습 등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감정 하나하나를 담아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정 아나운서가 자세한 소식 준비하셨죠?

20. 여자 : (아나운서 톤으로) 유명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조명과 보안시설 등을 다시 보완해 유명 갤러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도 비디오나 DVD,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KIC 김수진입니다.

※ [21-22]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여자 : 오늘처럼 황사가 심한 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한국과학연구소 이명훈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남자 :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체내의 중금속 양이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중금속에 중독된 쥐에게 돼지고기와 돼지기름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체내 중금속 양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가 중금속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 남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 남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3-2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고산 증세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여기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요.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요.
여자 : 그거 고산 증세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해발 3400미터거든요. 산소
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 : (힘없는 목소리로) 그럼 그냥 이대로 기다려요? 약 같은 거 없어요?
여자 : 이곳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차가 있는데 드셔 보세요. 고산병에 도
움이 된대요.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다른 활동하지 마시
고 편안하게 쉬세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천천히 길게 호흡하고요.
음식도 조금만 드시고요.
남자 : (실망한 듯) 오늘 오후에 박물관을 가려고 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 하겠네.

23. 남자가 해야 될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24. 남자는 어떤 심정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5-26]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이 책에서 보면 목격자의 역할이란 말을 자주 쓰셨는데요. 어떤 의
미로 사용하신 겁니까?
여자 : 우리들 각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나같이 한국에서 힘
없는 대학생이, 돈 없는 직장인이 이렇게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
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 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마음대로 하겠지
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처
럼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약하
고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의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주시하
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25.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6. 들은 내용 중 목격자의 역할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27-28]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그럼, 먼저 '깨진 유리창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남자 : 사소한 잘못된 행동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잘못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머지 유리창도 깨뜨려도 된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 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자 : 이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남자 :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절도 같은 범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위반 사항들부터 엄격하게 단속했는데요. 전에는 눈감아 주곤 했던 소란 행위나 무임승차, 무단횡단 등을 용서하지 않고 엄격한 법을 적용한 것이지요.

여자 :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7. 들은 내용 중 '깨진 유리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4점)

28. 이 이후에 남자가 말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29-30]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남자 : 가수나 영화배우 같은 한류 스타도 운동선수나 예술 분야의 전문가 처럼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예술 분야만 이런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면제가 어렵다면 군대에 복무하면서 중요한 해외 연예 활동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수입을 국가에 돌린다면 국가에도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한류 스타의 군대 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군대에 복무하면서 연예 활동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류 스타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가에 돌린다고 했는데 기획사가 연관돼 있는 대부분의 한류 스타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29. 남자가 주장의 근거로 들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30. 여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